



떼제의 편지

KO

칠레의 청년사목
(목회) 책임자들과 제 2차 중남미

국제모임을 2010년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산티아고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는 2010년이 칠레 국민들에게 기쁨과 시련의 한 해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2010년 한 해 동안 이 젊은이 모임을 준비하면서 우리 형제들은 수많은 기쁨과 고난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다른 중남미 여러 나라와 함께 독립 2백주년을 기념하는 해에 닥친 육지와 해상의 자연재해로 칠레 국민들은 커다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2월의 지진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칠레인의 영혼 밀바탕에서 우러나온 관대함의 물결에서 우리는 칠레 국민들이 어려울 때 얼마나 일체감으로 뭉친 한 가족인지를 보았습니다.

많은 청년들은 가옥과 일터를 잃은 사람들을 찾아가 도왔습니다. 그들은 “메디아사구아”라 불리는 작은 목조 임시 가옥을 세우는데 시간과 노력을 바쳤습니다.

동시에 칠레의 원주민들, 특히 마추케 죽은 장기간의 단식 투쟁을 통해 그들의 고통과 열망을 나타냈습니다.

얼마 뒤에는 광산 사고로 지하에 갇혔던 서른 세 명의 광부들이 구출되는 모습이 온 국민에게 기쁨을 다시 선사했습니다.

12월 초에 산티아고에서 열린 국제 모임에는 칠레와 중남미 전역에서 수천 명이 모여와 기쁨과 아픔 그리고 도전을 함께 나누었고, 이를 통해 더 우에 있는 세상을 이루는데 힘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임에 아이티의 청년들 몇몇을 맞이할 수 있었기에 우리의 기쁨은 더 컸습니다. 그들을 통해

2010년 1월의 지진으로 엄청난 고난을 당한 아이티를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습니. 그래서 산티아고 모임을 마치고 로테르담의 유럽 모임 (2010년 말)이 열리기 전에 아이티를 방문했습니다. 이 방문을 통해 시련 속에서도 믿음으로 꿋꿋이 나아가는 아이티인들을 향한 세계 청년들의 연대와 감탄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그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려 합니다. “우리의 희망이신 하느님, 아이티 국민들을 당신께 맡깁니다. 우리는 무고한 사람들의 이해 못할 고통 앞에 어찌할 바 모르겠지만, 필요한 구호를 가져다 주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시도록 당신께 청합니다. 우리는 아이티 사람들의 깊은 신앙을 압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기운없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우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며,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 민족에게 당신 자비의 성령을 부어주소서.

2011년 편지

칠레에서 보내는 편지

기쁨

마음의 기쁨, 여기에 그대의 생명이 있습니다. “슬픔을 쫓아버리십시오!”¹ 그리스도보다 훨씬 앞서 살았던 한 신자의 이 부름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여러 시련과 고통을 겪고 때로는 그것이 오랜 기간 지속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의 기쁨을 되찾으려 늘 애쓰고자 합니다.²

기쁨은 어디에서 우리에게 옵니까?

그것은 예기치 못한 만남, 지속적인 우정, 예술의 창조, 혹은 자연의 아름다움에서 피어납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때 영혼의 심연이 조금씩 행복으로 차 오릅니다.³

1 집회서 30,22-23 참조. 에르마스라 불린 2세기의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썼습니다. “기쁨으로 웃입어라... 슬픔을 벗어버리고 오직 기쁨으로 웃입는 사람은 하느님을 위해서 살게 되리라.”

2 인생을 완성에 이르게 하는 것은 엄청난 성취가 아니라 마음의 심연에 와닿는 평온한 기쁨입니다. 각각의 삶은 여전히 미완성이며, 조각조각 갈라지고 아픔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온함을 없애버리지는 못합니다.

3 정교회 신학자 알렉산드르 쉬머만 (1921-1983)은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저 기쁜 것, 피안의 기쁨, 하느님이 계시고, 그분이 손길이 영혼에 닿은 기쁨. 이 손길, 이 기쁨(이것은 영혼의 근거 자체가 되었기에 사실 “아무도 앗아갈 수 없는” 것이다)의 체험. 이 체험은 생각의 진행과 방향 그리고 삶에 대한 태도를 결정한다.”

그럴 때 우리는 기쁨을 선택하도록 결심할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가난과 결핍을 아는 사람이 아주 즉흥적인 삶의 기쁨을 누릴 줄 압니다. 그런 기쁨이 있을 때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⁴

우리를 기쁨으로 초대하는 성경은 기쁨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를 여러 대목에서 보여줍니다. 이 기쁨은 그때그때의 상황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대한 신뢰에서 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⁵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종교들과 경쟁할 종교를 하나 창시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한 사람 한사람이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하느님과의 친교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간 조건에 동참하셨습니다. 하느님을 믿을 때 인간적인 모든 것, 이를테면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의 헌신 등에 더욱 우리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이런 관대한 행동 안에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게 그리스도께서 숨어 계십니다.⁶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근본적인 쇠신을 가져다 주십니다. 이 새로운 삶을 우선 당신 친히 사셨고 끝까지 충실히 남기 위해 분투하셨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그분은 이런 신비로운 말씀을 하시며 빵을 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내 몸이다.”⁷ 그렇습니다. 그분은 “사람(육신)이 되신 말씀”이십니다.⁸ 자신의 부당한 죽음도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으로 변모시키셨습니다.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당신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 주시며 하느님의 생명 자체인 성령을 주셨습니다.⁹

성령께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기쁨을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 심어 주십니다. 만사가 쉬울 때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에 직면해서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때 기쁨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시련 가운데서도 잿더미 속에서 꺼지지 않은 불씨처럼 숨어있을지 모릅니다.¹⁰ 찬양할 때 우리 안에서 이 기쁨이 솟아나게 되고 어느새 현 순간이 환히 밝아옵니다.¹¹

자비심

기쁨을 선택하는 것은 삶의 여러 문제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반대로 기쁨을 선택할 때 우리는 현실을 직면하고, 고통조차도 똑바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기쁨을 선택하는 것은 인간을 위한 선택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기쁨을 선택할 때 우리는 한없는 자비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비록 적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기쁨을 맞볼 때 우리는 친교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행복이 길인양 간주하는 것은 환상입니다.¹²

친교의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는 서류를 거슬러 갈 용기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고통받는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고난의 상황에 대해 마음을 여는데 필요한 창의력을 주실 것입니다.¹³

¹⁰ 아토스 산의 한 수도원장인 바실 콘다카키스 신부는 아주 시적이고 신비적인 언어로 그것을 표현합니다. “동정 마리아의 모범과 도움으로 하느님의 뜻에 따르려는 평온하고 깨끗한 영혼은 누구나 은총(은혜)에 의해 하느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 죽음을 넘어서는 작은 기쁨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 말이다.”

¹¹ 예수께서는 수난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너희도 근심에 싸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와 만나게 될 때에는 너희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이며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요한 16,22)

¹² 철학자 마르틴 부버 (1878-1965)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너’가 은총으로 나를 만나는 것이지 내가 찾다고 발견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내가 그를 ‘너’(당신)이라고 부른다는 사실, 내가 가장 원초적인 이 말을 그에게 건넨다는 사실이 내 존재의 이유이고 나를 존재케 하는 것이다. 나는 ‘너’(당신)를 통해 나 자신이 되고, 내가 됴으로써 ‘너’라고 말하게 된다. 진정한 모든 삶은 만남이다.”

¹³ 알베르토 우르파도 (1901-1952)는 2005년 교종 베네딕도 16세에 의해 시성된 칠레의 성인입니다. 예수회 사제였던 그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 삶을 바쳤기에 칠레인들에게 큰 공경을 받습니다. 그는 노숙자, 어린이들,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보금자리”를 설립했습니다. 1947년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맨 먼저 할 일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 그들의 고통을 참지 못할 정도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 ...나는 편안히 먹고 아무 아쉬움 없이 지내면서 그저 좋은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비참 속에 버려둔다면 내 임무를 다 했다고 할 수 없다. 나는 그들의 고통 때문에 아파해야 한다.... 그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 인간다운 삶이 그들 안에서 피어나고 그들의 지혜가 열리고 그들이 길 가에 버려져 있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면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응답해 올까? 일부는 그럴 것이다... 사랑으로 일을 한다면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다.”

⁴ 여러 해 전에 로제 수사와 함께 아이티에 갔을 때 만난 사람들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이 아름다운 나라에는 엄청난 비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흔히 그날 아이들을 먹일 음식을 구할 수 있을지 여부조차 알지 못하는 어머니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티 사람의 대다수는 2010년의 대지진을 겪고도 하느님께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았습다.

⁵ 필립비 4, 4-5.

⁶ 마태 25,35-40 참조

⁷ 루카(누가) 22,19.

⁸ 요한 1,14.

⁹ 요한 20,22.

행복의 길은 예수를 따라서 매일 매일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단순 소박하게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 공동체, 우리 본당이나 교회, 우리 젊은이 단체가 더욱 더 선함과 신뢰의 장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며 남을 이해하고 도우려 애쓰는 장소, 우리가 가장 약한 사람들, 우리와는 배경이 다른 이들, 우리보다 가난한 이들에게 더 마음을 쓰는 장소 말입니다.

우리 시대의 징표 가운데 하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자연 재해의 희생자를 도운 아름다운 관대함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관대함이 일상 생활에까지 우리 사회를 움직일 수 있게 될까요?¹⁴

어떤 긴급 상황에서는 물질적인 원조가 참으로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의가 행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¹⁵

중남미의 그리스도인들은 가난을 거슬러 싸우는 것은 바로 정의를 위한 싸움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국제 관계에서도 원조가 아니라 정의가 필요합니다.¹⁶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배웁시다. 우리 모두는 남의 안녕을 해쳐서라도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반사적인 자기 보호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 불안이 증가하는 우리 시대에는 이것이 더 심해지는 듯합니다. 어떻게 하면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게 될

까요? 남에게 다가가는 것, 위협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까지 다가가는 것 아닐까요?

이민은 우리 시대의 또 다른 징표입니다. 때로는 위협으로 느껴지지만 이민은 벌써 미래의 모습을 규정하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¹⁷

우리 시대의 또다른 징표는 부유한 나라 안에서 증가하는 빈곤인데 이 경우에는 버림받음과 고립이 물질적 가난의 주 원인이 됩니다.

물질을 지나치게 축적하는 것은 기쁨을 질식시킵니다.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조출한 생활 방식을 선택할 때, 이윤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의미를 주기 위해 일할 때, 다른 이들과 나눌 때, 우리 각자는 평화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십니다.¹⁸

용서

복음은 우리가 더 멀리 나아가도록 격려해 줍니다. 정의는 용서로 이어져야 합니다. 인간 사회는 용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세계의 많은 곳에서 역사의 상처는 너무나 깊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그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끝내도록 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준비된 평화의 미래는 온전히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다는 것은 잘못을 잊어버리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용서의 메시지는 결코 부당한 처사를 지지하는데 이용될 수 없습니다. 그 반대로 용서를 믿을 때 우리는 더 자유로워져서 우리 자신의 잘못을 알아낼 수 있게 되고 또 우리 주위와 세계의 잘못과 불의를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 가능한 모든 것을 치유하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이 어려운 길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움이 있으니, 그것은 교회의 친교 안

14 교종 베네딕도 16세는 영국을 방문했을 때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각국 정부는 금융기관들이 ‘하도록 내버려 두기에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금융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엄청난 재원이 동원될 수 있다는 것을 온 세상이 목격했습니다. 세계 여러 민족들의 조화로운 개발이 조금도 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세계의 관심이 필요하고 진정으로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사업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15 “그대가 가난한 이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그대의 재산이 아니다. 그의 몫을 돌려주는 것일 뿐이다. 모든 이들이 사용하도록 모든 이에게 주어진 것을 너 혼자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땅은 부자의 것이 아니라 모든 이의 것인데 거기서 애써 일하는 모두를 체치고 몇몇이 가로챈 것이다. 그래서 너는 선심을 쓰기는 커녕 사실 너의 빛을 갠 것이다.” (밀라노의 압브로시오, 4세기)

16 아빠레시다 회의 (2007년 5월) 문헌에서, 중남미의 가톨릭 교회는 이렇게 씁니다. “세계의 공동선을 위해 일하는 것은 경제와 금융, 국제 무역의 정당한 규제를 진작하는 것이다. 외채를 지속적으로 탕감해서 개발과 사회 복지를 위한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 자본의 투기 흐름을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한 규제를 만들어 공정무역을 강화하고 강대국의 보호주의 장벽을 낮추는 것, 빈국이 생산하는 원료의 적정한 가격을 확보하는 것 등이 시급히 필요하다. 그렇게 할 때 투자와 서비스를 유치하고 조정하기 위한 공정한 규정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17 이민은 물론 조절되어야 하지만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민자들을 한 사회로 통합하려는 진정한 관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민자들이 주택과 일자리를 찾고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입니다. 이들을 맞이하는 나라가 그들에게 권리를 주는 것은 적절한 의무를 지우는 것과 병행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외국인을 그저 외국인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그들에게 다가가고 친교를 맺는 것은 무지에서 오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18 2 디모테오 1,7. 참조

제 34회 젊은이들의 유럽 모임이 2011년 12월 28일부터 2012년 1월1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립니다.

알로이스 수사와 때제의 형제들은 유럽 각국의 청년들과 함께 2011년 4월 20일부터 4월 25일까지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정교회와 더불어 성주간과 부활절을 경축할 예정입니다.

제 3회 아프리카 국제 모임이 르완다의 키갈리에서 2012년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에서 하느님의 용서가 새롭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 한 사람 한사람은 일용할 양식처럼 용서가 필요합니다.¹⁹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용서를 거저 베풀어 주십니다. 그분은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²⁰ 기도 하면서 손을 벌리는 것은 이 용서를 받아들이려는 우리의 열망을 표현해 주는 아주 단순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에서 “...저희가 용서 하듯이 저희 죄를 용서해 주소서”, 라고 기도할 때 이미 그분의 용서가 우리를 움직입니다. 이것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친히 가르쳐주신 이 말로 기도할 때 무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돌이킬 수 없도록 완전히 정죄하지 않고 용서할 자세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잘못된 이와 잘못 자체를 구별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던 마지막 순간에까지 그분은 그 누구도 단죄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잘못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안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려 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기 때문

입니다. 그럴 때 하느님의 용서가 결코 모자라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때때로 조금씩 단계적으로만 거기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용서하려는 열망은 이미 그 첫 걸음입니다. 쓰라림에 잠겨 그 열망이 아직 곁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도 그렇습니다.

용서하심으로써 하느님은 잘못을 없애는 것 이상을 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다정함 안에 성령께서 밤낮으로 지피워주시는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하느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전하는 것이 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여신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이미 목적지에 도달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가난한 자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치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특징짓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 속하려는 선택일 뿐입니다. 이 선택을 하면서 우리는 결심한 바를 일관성 있게 실천하고자 합니다.²¹

우리 모두는, 용서받거나 용서해 주는 것이야말로 기쁨의 원천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아마 가장 심오하고 가장 자유케하는 기쁨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내적 평화의 샘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평화는 우리를 멀리 멀리 이끌어주고 다른 사람들과 세상을 비추어줄 것입니다.²²

알로이스 수사 *f. Alois*

¹⁹ 개신교 신학자 수잔 드 디트리히 (1891-1981)는 때제공동체 초창기에 로제 수사와 첫 형제들이 주저없이 종신토록 공동생활에 헌신하도록 격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용서로 사는 사람이고 매일 하느님의 계명을 어긴다는 것을 잘 알지만 매일 하느님께로 돌아서는 사람이며 하느님께서 그 삶에서 결정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안고 가시며 자신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책임지셨다. 그는 혼자서 분투하는 것이 아니며 그가 자신을 바친 분이 결코 그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의 확신은 이미 지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느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진보에 눈멀지 않고 자신의 퇴보에 낙심하지 않는다. 그는 항상 다시 일어난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 다른 분에게 속하기 때문이다.”

²⁰ 시편 103.3. 이 시편은 전체가 하느님의 용서를 노래합니다. 이사야 예언자도 역사의 어두운 한 시기에 하느님은 언제나 용서하신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악행을 먹구름처럼 흩어버렸고 너의 죄를 뜬구름처럼 날려보냈다.” (이사야 44,22).

²¹ “그리스도인은, 의심할 나위없이 모든 인간이 그렇듯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할 뿐더러, 그리스도의 존재이다. 이 말은, 세상에서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바로 자신의 행동 방향이 되고 어두움을 거슬러 싸우시는 예수의 투쟁이 이제는 자신이 헌신 노력할 싸움이 된다는 말이다.” (칼 바르트, 1886-1968)

²² 19세기 러시아의 수도승이었던 사로프의 세라핀 (1759-1833)은 “마음의 평화를 얻어라. 그러면 네 주위에서 수천명이 구원을 발견할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